

보낸사람: "long"

날짜: 2013 년 3 월 20 일 수요일

제목: What is History ?; 讀後感

< What is History >

歷史의 意味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것을 史觀이라 한다
큰 두 갈래의 사관을 대표하는 역사학자가 있다.

하나는 歷史的 事實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客觀的 사실들의 集合體
라고 하는 近代歷史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독일에서 태어난 루터교의 집안에서
자란 Leopold von Ranke (1795-1886)이다.

Ranke 는 로마역사적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名言을 남긴적이 있다

" 모든 古代史는 이를테면 많은 개울이 湖水로 흘러 가듯이 로마의 역사로 흘러 들어가고
모든 近代史는 다시 로마로 부터 흘러 나왔다."

斗溪 李丙燾博士(1896-1989)가 日本 와세다대학 史學及 社會學科에 유학시

日本 史學界의 一般的인 潮流인 Ranke 의 史學을 밑바탕으로

한 역사사실의

文獻考證을 주로 한 系列이다. 이들은 Ranke 의 "主觀的인 判斷없이 역사적 사실을
원래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야 하는 史觀을 따랐다.

李丙燾박사의 回考錄에 의하면 한때 독일에 유학을 꿈꾼 일이 있음을 述懷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- Ranke 는 베를린대학에 봉직하면서 -로마敎皇史
- 宗教改革시대의 獨逸史
 - 未完成의 世界史 등 60여권의 책을 저술 하였다.

그는 神 中心의 歷史認識을 人間中心으로 변화하는데 주도적인 役割한 학자로서 세가지 側面에서 역사학에 기여했다

즉 1) 역사학을 哲學이나 文學에서 獨立된 별개의 학문으로 定立하는데 도움을

주고 2) 과거는 과거의 基準으로 봐야 한다. 3) 古代및 中世文獻研究에서 당시 문헌학자들에 의해 개발한 방법을 근대역사의 연구에 도입하였다.

또 하나의 다른 記錄으로서의 역사는 主觀的 역사인 歷史家에 의해 再構成된 歷史라야 한다는 史觀을 대표하는 Edward Hallett Carr(1892-1982)이다.

그는 歷史는 現在와 過去의 끊임없는 對話라고 定義하고 있다. 영국에서 출생하여 Cambridge 大學 Trinity College 졸업후 1916년부터 영국외무성에 들어가 20여년간 外交官으로 활동중 1919년 제 1차世界大戰을 마무리하는 Versailler 講和條約회의에 영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.

그 후 <The Times>紙의 編輯長을 지내다가 대학으로 돌아와 國際政治學교수로

재직하다가 1955년에는 母校로 돌아와 1982년 타계하기 까지 "소비에트 러시아"연구에 전념하였다

그의 주요 저서로는

- 20년간의 危期(1919-1939)
- 平和의 條件(1942)
- Nationalism과 그 이후 1945
- 불세비키革命(1950-1953)
- 소비에트 러시아(1950)

그리고 그의 1961년에 출판된 "What is History?" 란 1961년 1월부터 3월까지

Cambridge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수록한 것인데

그의 歷史서술전체를 관통한 觀念을 "러시아 革命의 把握""進歩의 史觀"

"相對主義史觀" 셋으로 나누어 批判적으로 照明한 것이다.

第 1 章 歷史家와 事實.

第 2 章 社會와 個人.

第 3 章 歷史와 科學과 道德.

第 4 章 歷史에서의 人間關係.

第 5 章 進歩로서의 歷史.

第 6 章 넓어지는 地平線.

간단히 要約하면

一般的으로 "歷史"라 불리우는 것에는 嚴密하게 말해서 두 개의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. 抽象的 實體로서의 歷史(過去の 現實 全體)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具體的으로 認識된 歷史(알려진 過去の 사실 또는 "歷史的 事實"이다.

이 가운데 우리가 實際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後者이다

歷史는 말하자면 "二重性"을 지니는 바, 어떤 形態로든 "記錄"되지 않은 過去는 "歷史"가 아니라는 점에 留意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.

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"歷史"를 認識할 수 있는가?

다시 말해서 과거의 수많은 사실들 가운데 "歷史的 事實"을 把握해 내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? 여기서 Carr 는 "歷史家"라는 存在의 重要性을 強調한다.

과거의 사실들은 스스로 말 할 수 없으며 ,반드시 歷史家의 손을 거쳐 그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다.

그렇다고 해서 歷史家가 과거 사실을 自意的으로 裁斷한다거나 歪曲해서는

안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. 이러한 의미에서 歷史는 "歷史家와 事實", 卽

"現在와 過去"의 "對話"라고 할 것인바, "歷史란 무엇인가?"에 대한 Carr 教授의 첫번째 답변이 바로 이것이다.

<http://wwl1620.hanmail.net:4280/@from=ilchough&rcpt=ilchough%40daum.net&msgid=%3C20130320150121.HM.000000000005nc%40ilchough.wwl1620.hanmail.net%3E>